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58-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2025. 12. 3.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2025년 종교인구 현황

2025년 종교인구 비율: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교 11%, 종교 없음 51%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종교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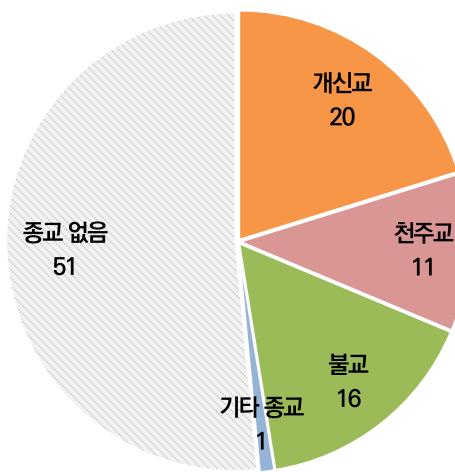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은 2018년 1월 처음 조사를 시작했다. 2019년 2월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는 격주 1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 조사에서 믿는 종교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22번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2025년 종교 인구를 추산해 보았다.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믿고 있으며 불교를 믿는 사람은 16%이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11%,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1%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1%는 믿는 종교가 없다. 이는 2024년 24회 진행한 '여론 속의 여론' 조사로 추산한 전체 종교 인구 현황과 동일한 결과이다([2024년 1월 ~ 11월 진행한 22번의 조사로 추산](#)한 2024년 불교 인구 비율은 17%이지만, 12월 2회 조사를 더한 결과 2024년 전체 불교 인구 비율을 최종 16%로 추산).

2018년 처음 시작한 '여론 속의 여론'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간 종교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 인구 모두 큰 변화가 없다. 2019년 이후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전체의 20%, 불교 신자의 비율은 16 ~ 17%, 천주교 신자의 비율은 11%를 유지하고 있다.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 역시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교 인구 비율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종교계의 새로운 신자 유입 노력이 이탈을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5년 종교인구 비율: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교 11%, 종교 없음 51%

(단위 : %)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25년 1월 ~ 11월 총 22회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 통합

응답자 수 : 총 23,000명(1~21차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2차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5년 1월 ~ 11월(격주 1회, 총 22회 진행)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종교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
개신교 20%, 불교 16~17%, 천주교 11%, 믿는 종교 없음 50% 내외**

(단위 : %)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여론 속의 여론' 통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1월)	
개신교	20	22	20	20	20	20	20	20	20
천주교	8	12	11	11	11	11	11	11	11
불교	16	17	17	17	17	17	16	16	16
기타 종교	1	1	3	2	2	2	2	1	
종교 없음	56	48	49	51	50	51	51	51	51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18년 1월 이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 비율을 연 단위로 재계산한 값
2025년 종교 인구는 1월 ~ 11월 22회 조사 결과로 추산

응답자 수 : 총 141,000명

조사기간 : 2018년 1월 ~ 2025년 11월(2019년 2월까지는 월 1회, 이후부터는 격주 1회)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자 비율도 증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자 비율도 증가

수도권, 충청, 호남에서는 개신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불교 강세 지속

남성과 여성 모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신자가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종교 인구 비율(53%)이 남성(45%)보다 8%포인트 높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대별로 이 양상은 달라진다. 18~29세와 30대에서는 오히려 남성의 종교 인구가 여성보다 많다(18~29세 남성 30% vs 여성 26%, 30대 남성 39% vs 여성 32%). 40대부터 역전되어 여성 종교 인구가 많아지고, 70세 이상에서는 그 격차가 18%포인트(여성 79%, 남성 61%)까지 벌어진다. 젊은 세대에서 남성 종교 인구가 더 많은 이유, 혹은 반대로 여성 종교 인구가 더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상세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세 종교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자 비율이 증가하는 공통된 패턴을 보인다. 개신교 신자 비율은 13%(18~29세) → 15%(30대) → 18%(40대) → 20%(50대) → 24%(60대) → 29%(70세 이상)로 높아진다. 불교 신자 비율은 8%(18~29세) → 12%(30대) → 14%(40대) → 19%(50대) → 22%(60대) → 21%(70세 이상)이며, 천주교 신자 비율은 천주교 신자 비율은 5%(18~29세) → 8%(30대) → 10%(40대) → 10%(50대) → 15%(60대) → 19%(70세 이상)이다.

개신교는 광주·전라(25%)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13%)에서 세가 가장 약하다. 불교는 이와 정반대로 부산·울산·경남(29%)과 대구·경북(23%)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개신교가 불교보다 약 10%포인트 높다(서울 기준 개신교 22%, 불교 13%). 천주교는 강원·제주(16%)에서 신자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7%)에서 가장 낮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자 비율도 증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자 비율도 증가**

(단위 : %)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25년 1월 ~ 11월 총 22회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을 통합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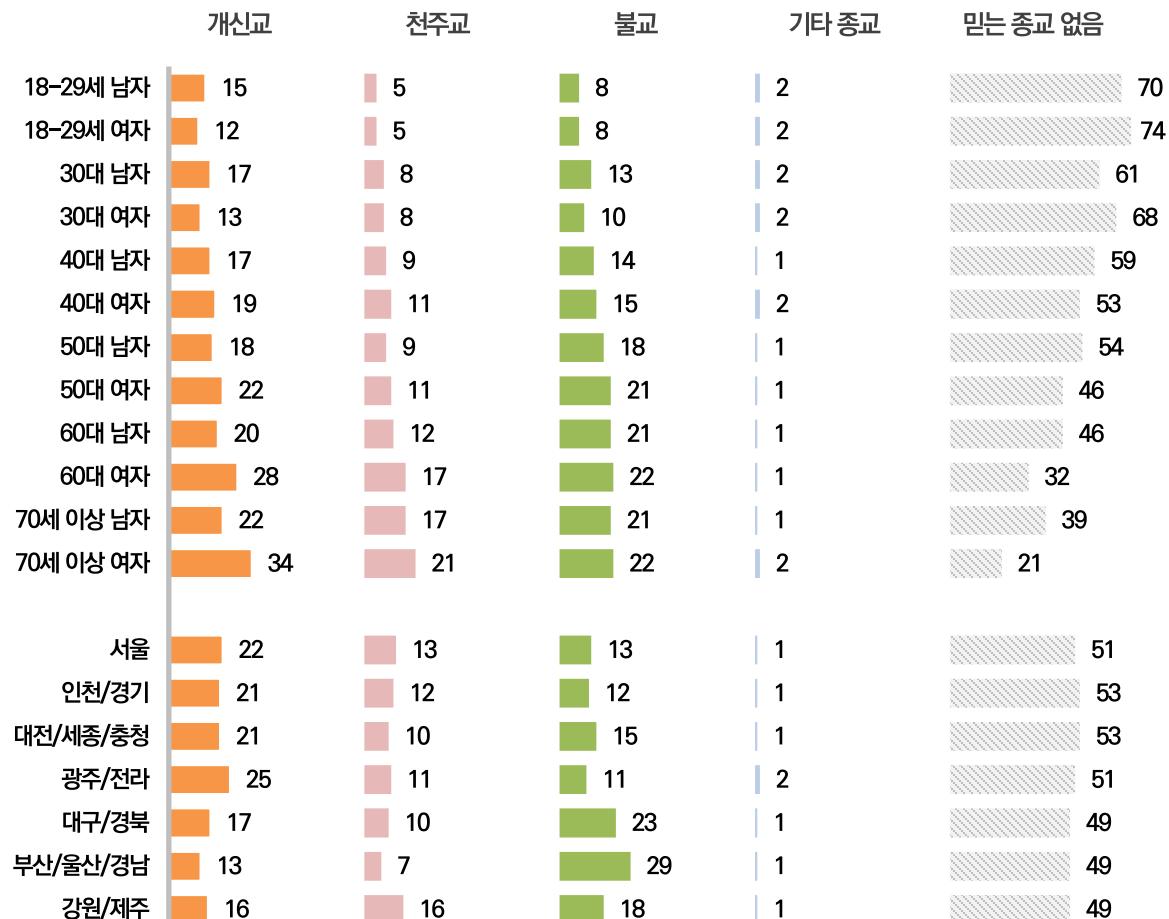
응답자 수: 총 23,000명(1~21차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2차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5년 1월 ~ 11월(격주 1회, 총 22회 진행)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종교 인구 비율, 2·30대에서는 남성이, 4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더 높아
수도권, 충청, 호남에서는 개신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불교 강세 지속**

(단위 : %)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25년 1월 ~ 11월 총 22회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을 통합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제시

응답자 수: 총 23,000명(1~21차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2차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5년 1월 ~ 11월(각주 1회, 총 22회 진행)

**종교 인구 비율 49%, 전년과 동일
주요 종교별 신자 비율도 지난해와 동일**

(단위 : %, %포인트)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믿는 종교 있음			믿는 종교 없음		
	차이		'24년	차이		'24년	차이		'24년	차이		'24년	차이		
	'25년	(25년-24년)	'25년	(25년-24년)	'25년	(25년-24년)	'25년	(25년-24년)	'25년	(25년-24년)	'25년	(25년-24년)	'25년	(25년-24년)	
전체	20	20	-	11	11	-	16	16	-	49	49	-	51	51	-
성별															
남자	18	18	-	10	10	-	16	16	-	45	45	-	55	55	-
여자	22	22	-	12	12	-	17	17	-	53	53	-	47	47	-
연령															
18~29세	13	13	-	7	5	-2	8	8	-	30	28	-2	70	72	+2
30대	16	15	-1	9	8	-1	11	12	+1	37	36	-1	63	64	+1
40대	20	18	-2	9	10	+1	14	14	-	44	44	-	56	56	-
50대	20	20	-	9	10	+1	20	19	-1	51	50	-1	49	50	+1
60대	23	24	+1	14	15	+1	23	22	-1	62	61	-1	38	39	+1
70세 이상	29	29	-	17	19	+2	22	21	-1	70	71	+1	30	29	-1
성별x연령															
18~29세 남자	15	15	-	8	5	-3	7	8	+1	32	30	-2	68	70	+2
18~29세 여자	12	12	-	6	5	-1	9	8	-1	28	26	-2	72	74	+2
30대 남자	17	17	-	9	8	-1	11	13	+2	39	39	-	61	61	-
30대 여자	14	13	-1	8	8	-	10	10	-	35	32	-3	65	68	+3
40대 남자	18	17	-1	9	9	-	14	14	-	42	41	-1	58	59	+1
40대 여자	22	19	-3	9	11	+2	14	15	+1	47	47	-	53	53	-
50대 남자	18	18	-	9	9	-	18	18	-	47	46	-1	53	54	+1
50대 여자	23	22	-1	10	11	+1	21	21	-	56	54	-2	44	46	+2
60대 남자	18	20	+2	12	12	-	22	21	-1	53	54	+1	47	46	-1
60대 여자	28	28	-	16	17	+1	24	22	-2	70	68	-2	30	32	+2
70세 이상 남자	24	22	-2	13	17	+4	22	21	-1	60	61	+1	40	39	-1
70세 이상 여자	32	34	+2	20	21	+1	23	22	-1	77	79	+2	23	21	-2
거주지역															
서울	22	22	-	13	13	-	13	13	-	50	49	-1	50	51	+1
인천/경기	22	21	-1	12	12	-	12	12	-	48	47	-1	52	53	+1
대전/세종/충청	21	21	-	10	10	-	16	15	-1	48	47	-1	52	53	+1
광주/전라	25	25	-	10	11	+1	11	11	-	49	49	-	51	51	-
대구/경북	15	17	+2	10	10	-	24	23	-1	51	51	-	49	49	-
부산/울산/경남	14	13	-1	7	7	-	29	29	-	52	51	-1	48	49	+1
강원/제주	17	16	-1	10	16	+6	19	18	-1	48	51	+3	52	49	-3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24년 1월 ~ 12월, 2025년 1월 ~ 11월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을 통합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제시
‘기타 종교 신자’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응답자 수: 2024년 24,000명, 2025년 23,000명

조사기간 : 2024년 1월 ~ 12월, 2025년 1월 ~ 11월(격주 1회, 총 46회 진행)

천주교 신자 50%, 개신교 신자 44%, 불교 신자 43%는 60세 이상… 종교인구 고령화 심각 개신교·천주교 신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반면, 불교 신자는 40%가 영남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남녀 구성비는 49:51로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여성 비율이 더 높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의 성비는 각각 44:56으로 여성이 더 많다. 불교 역시 48:52으로 여성 신자의 비율이 높다. 반면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성비는 53:47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보다, 종교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성인 남녀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이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의 50%, 개신교 신자의 44%, 불교 신자의 43%가 60세 이상이다. 종교인 10명 중 4~5명이 60세 이상인 셈으로, 전체 인구 기준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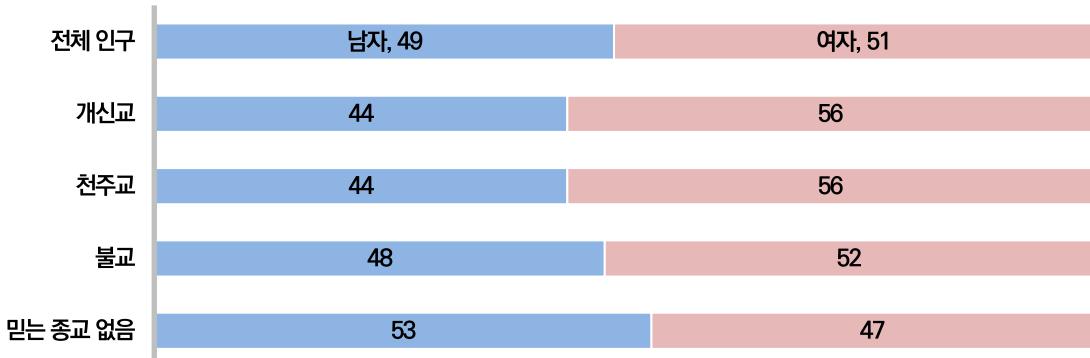
반면 30대 이하 젊은 신자 비율은 개신교 21%, 천주교·불교는 각각 18%에 불과하다. 전체 성인 남녀 인구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30%)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18~29세와 30대의 무종교 비율이 각각 72%, 64%에 달하고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종교 인구 고령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개신교 신자 중 55%, 천주교 신자 가운데에는 58%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한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남녀 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51%)보다 높다. 반면 불교 신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39%에 그치는 반면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는 40%로 오히려 더 많다. 세 종교 중 유일하게 불교만이 비수도권 중심의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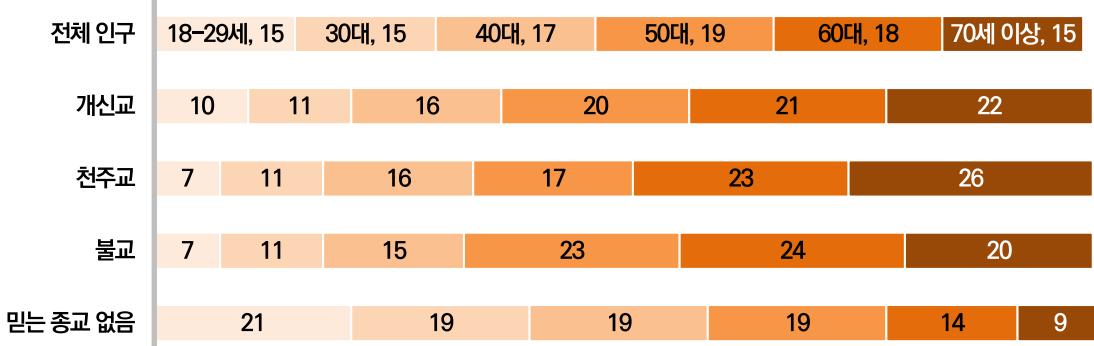
천주교 신자 50%, 개신교 신자 44%, 불교 신자 43%는 60세 이상… 종교인구 고령화 심각
개신교·천주교 신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반면, 불교 신자는 40%가 영남지역 거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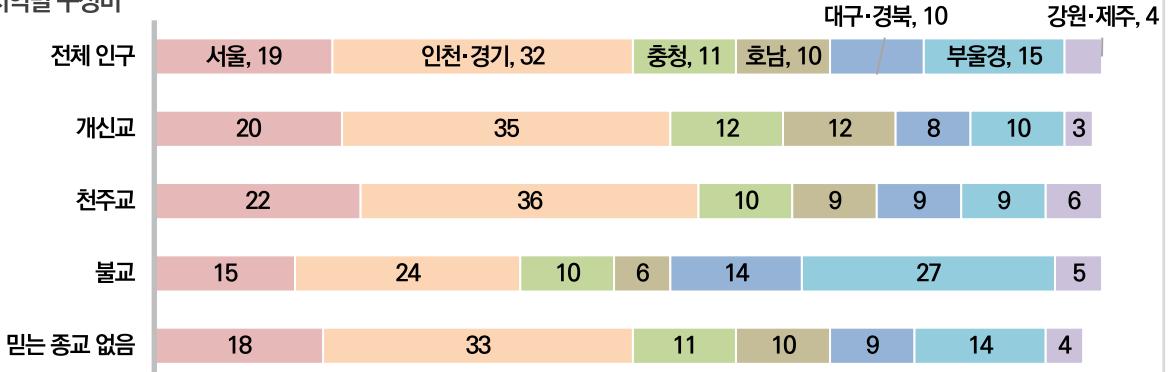
성별 구성비



연령별 구성비



지역별 구성비



질문 :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비고 : 2025년 1월 ~ 11월 총22회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의 종교 응답을 통합.
각 종교 및 믿는 종교 없는 인구를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성별, 세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제시

응답자 수 : 총 23,000명(1~21차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2차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5년 1월 ~ 11월(격주 1회, 총 22회 진행)

2 최근 1년간 믿는 종교 변화

최근 1년간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6%

1년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 이탈률은 각각 8%, 7%, 9%

지난 1년간 믿는 종교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전체의 94%다. 1년 전과 동일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48%, 1년 전에도 지금도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46%다.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6%이다.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사람이 전체의 4%이다. 반대로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지만, 현재는 있는 사람이 전체의 1%이다. 1년 전 믿었던 종교와 현재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답한 사람은 1%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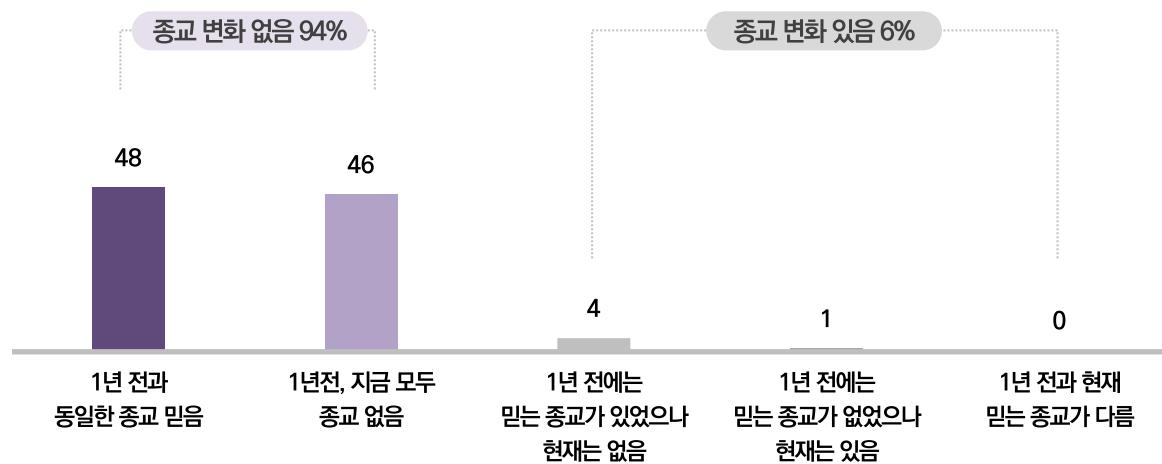
종교별로 살펴보면, 1년 전 개신교 신자였던 사람 중 92%는 현재도 개신교를 믿고 있다.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7%, 다른 종교로 전향한 사람은 1%이다. 1년 전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 중에서는 93%가 현재도 천주교를 믿고 있다. 신앙이 잃고 무교가 된 사람은 5%, 다른 종교로 전향한 사람은 1%이다. 1년 전 불교 신자였던 사람은 91%가 현재도 불교를 믿고 있으며, 8%는 무교로 돌아섰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전향한 사람은 1% 미만이다.

1년 전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는 97%가 현재도 믿는 종교가 없다. 3%만이 종교를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1년 전과 믿는 종교 동일한 사람 48%, 1년 전과 지금 모두 믿는 종교 없는 사람 46%

(단위 : %)

최근 1년간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6%



질문: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1년 전(2024년 11월)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종교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1년 전 개신교 신자였던 사람 중 8%,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 중 7%가 ‘현재는 믿는 종교 없거나 개종’
1년 전 불교 신자 중에서는 9%가 ‘현재는 믿는 종교 없거나 개종’

(단위 : %)

사례수 (명)	1년 전과 동일한 종교 믿음		종교 변화 없음	1년 전에는 믿는 종교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가 다름	종교 변화 있음
	1년 전, 지금 모두 믿는 종교 없음						
전체 (2,000)	48	46	94	4	1	0	6
성별							
남자 (992)	43	52	95	4	1	0	5
여자 (1,008)	53	41	94	4	2	0	6
연령							
18~29세 (301)	27	67	94	4	2	0	6
30대 (299)	36	57	93	5	1	1	7
40대 (343)	45	50	95	3	1	1	5
50대 (389)	48	47	94	4	1	0	6
60대 (354)	60	34	94	4	1	0	6
70세 이상 (314)	69	26	95	3	2	0	5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407)	96	0	96	0	3	0	4
천주교 (254)	97	0	97	0	2	1	3
불교 (302)	96	0	96	0	3	1	4
기타 종교 (36)	91	0	91	0	9	0	9
믿는 종교 없음 (1,002)	0	92	92	8	0	0	8
1년 전 종교							
개신교 (427)	92	0	92	7	0	1	8
천주교 (265)	93	0	93	5	0	1	7
불교 (316)	91	0	91	8	0	0	9
기타 종교 (38)	85	0	85	15	0	0	15
믿는 종교 없음 (955)	0	97	97	0	3	0	3

질문: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1년 전(2024년 11월)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종교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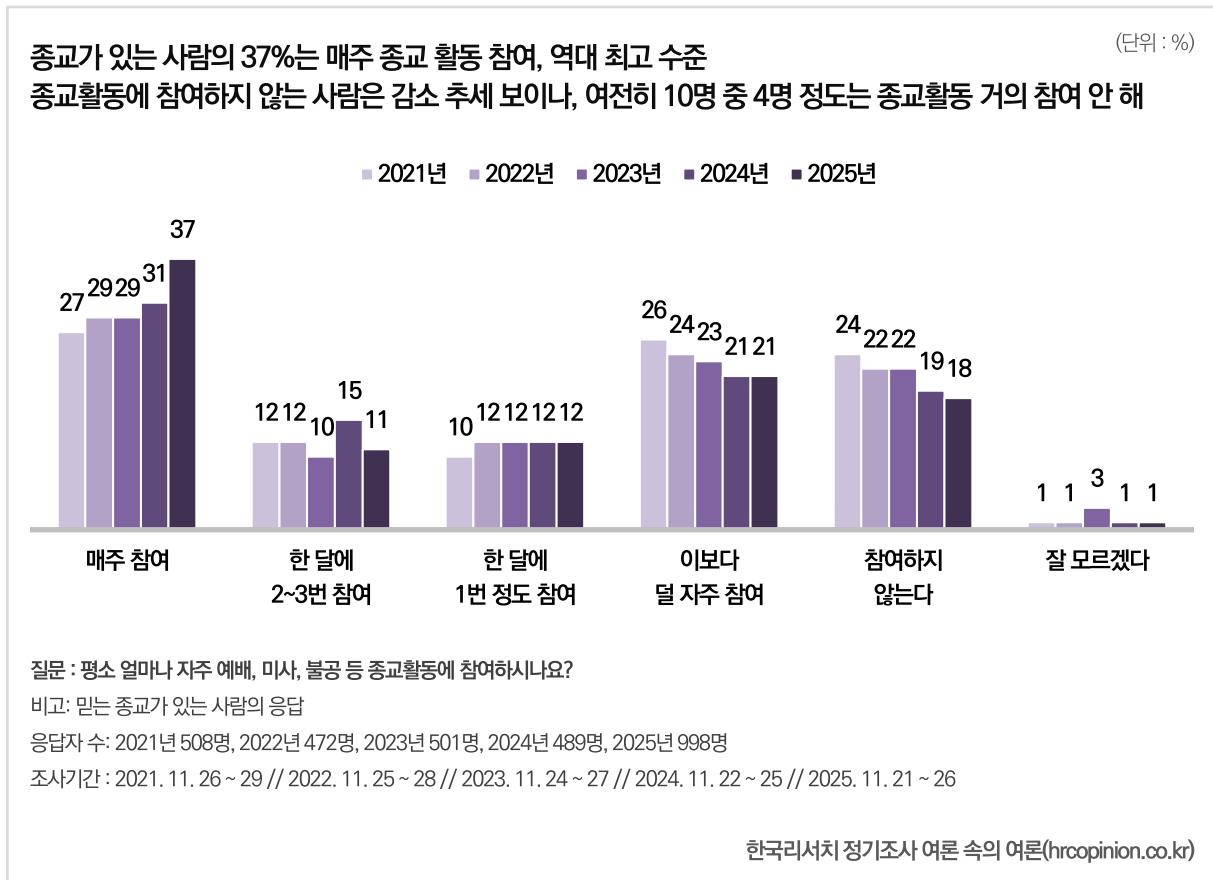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종교 활동 빈도와 중요성 인식

종교가 있는 사람의 37%는 매주 종교 활동 참여, 역대 최고 수준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감소 추세 보이나,
여전히 10명 중 4명 정도는 종교활동 거의 참여 안 해**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중, 예배나 미사, 불공 등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은 37%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1년에는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27%였는데, 4년 동안 10%포인트 상승해 본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달에 2~3번 참여하는 사람은 11%, 한 달에 1번 정도 참여하는 사람은 12%이다. 반면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18%, 한 달에 한 번 미만 참여하는 사람은 21%이다.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종교가 있는 사람 10명 중 4명 정도는 종교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한다는 응답 높아 30대 이하 신자는 27%만이 매주 종교활동 참여… 60세 이상은 46%가 매주 참여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여성(41%)이 남성(31%)보다 10%포인트 높다. 다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녀 모두 18%로 동일하다. 여성은 참여한다면 좀 더 자주 하고, 남성은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격차도 뚜렷하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의 비율은 18~39세 27%, 40~59세 31%, 60세 이상 4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은 절반(50%)이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반면 18~39세 남성 중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25%로 60세 이상 여성 신자의 절반 수준이다.

종교 인구 자체가 고령층에 집중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많지 않은 젊은 신자는 종교활동 참여도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종교계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한다는 응답 높아 30대 이하 신자는 27%만이 매주 종교활동 참여… 60세 이상은 46%가 매주 참여

(단위 : %)

사례수 (명)	매주 참여	한 달에 2~3번 참여	한 달에 1번 정도 참여	이보다 덜 자주 참여	참여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전체 (998)	37	11	12	21	18	1
성별						
남자 (438)	31	14	12	23	18	1
여자 (560)	41	9	11	20	18	1
연령						
18~39세 (202)	27	13	15	25	19	2
40~59세 (353)	31	11	11	22	23	1
60세 이상 (443)	46	10	11	18	14	1
성별x연령						
남자_18~39세 (112)	25	15	13	26	19	1
여자_18~39세 (90)	29	9	16	24	19	2
남자_40~59세 (155)	27	12	13	24	23	1
여자_40~59세 (199)	35	10	10	21	22	1
남자_60세 이상 (172)	40	13	11	21	14	1
여자_60세 이상 (271)	50	8	11	16	14	1

질문 : 평소 얼마나 자주 예배, 미사, 불공 등 종교활동에 참여하시나요?

비고: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의 응답

응답자 수: 998명

조사기간: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의 비율, 개신교 63%, 천주교 34%, 불교 3% 불교 신자의 24%, 천주교 신자의 23%, 개신교 신자의 9%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신교 신자 중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은 63%이다. 1년 전(55%)과 비교하면 8%포인트 늘었고,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의 비율이 크게 높다.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개신교 신자는 9%, 한 달에 한 번 미만 참여하는 개신교 신자는 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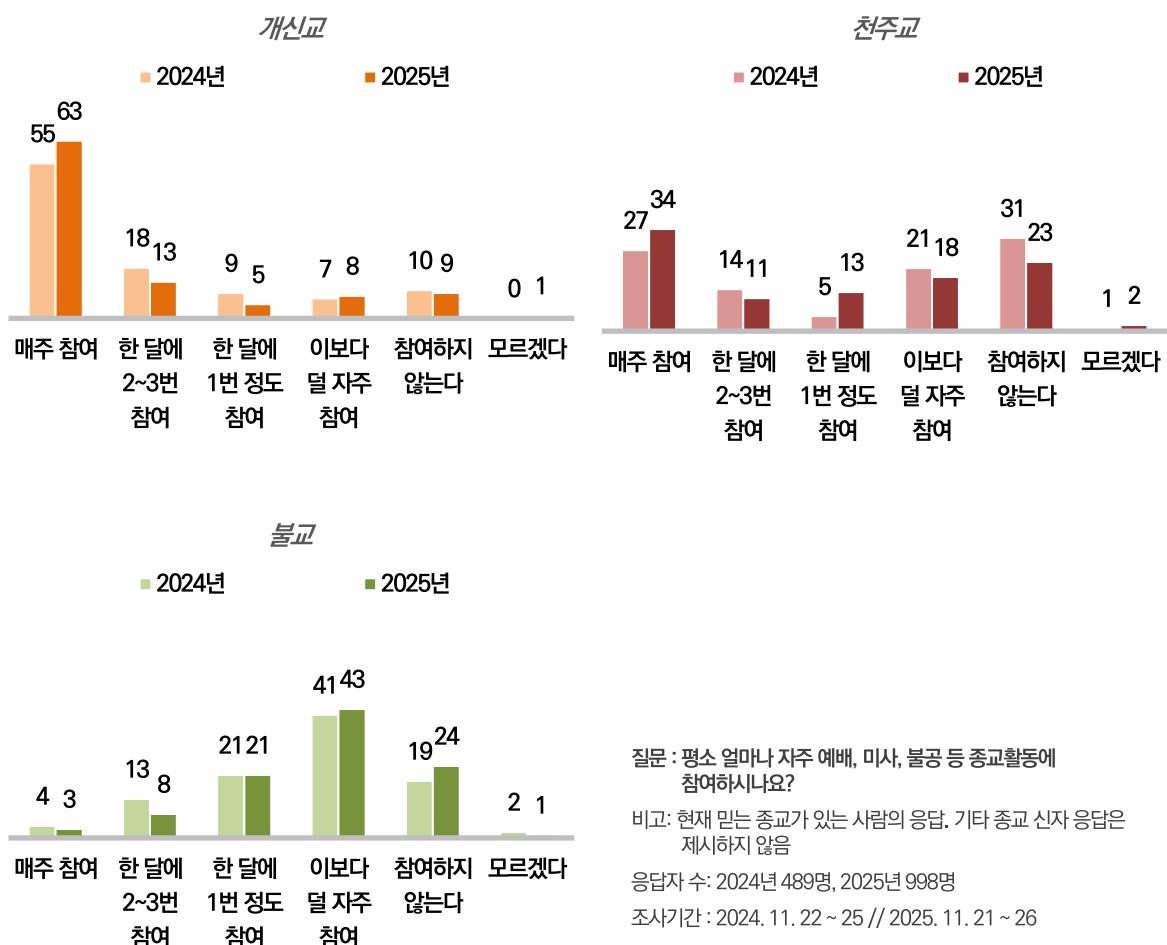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34%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지난해(27%) 대비 7%포인트가 늘었다.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신자의 비율도 지난해 31%에서 올해 23%로 8%포인트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천주교 신자의 종교 활동 참여율이 지난해보다는 높아졌다.

불교 신사 중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3%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극소수이다. 한 달에 한 번 미만 참여하는 신자가 43%로 가장 많으며, 24%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명 중 2명 가량이 종교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하면, 개신교 신자의 종교 활동 참여가 천주교나 불교 대비 월등히 높다. 천주교 신자의 종교 활동 참여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모습을 보이며, 불교 신자는 여전히 종교 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다. 예배 중심의 개신교·천주교와 달리, 불교는 개인 수행의 비중이 높아 '종교활동' 개념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의 비율, 개신교 63%, 천주교 34%, 불교 3%
불교 신자의 24%, 천주교 신자의 23%, 개신교 신자의 9%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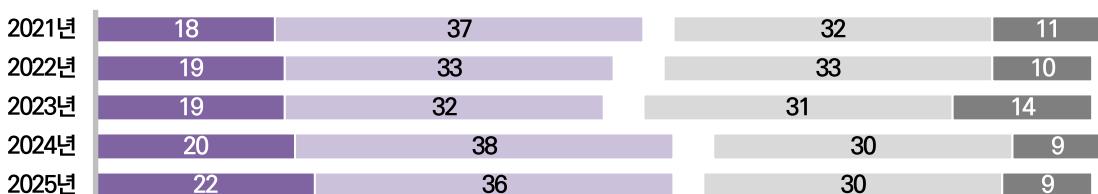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58%, 중요하지 않다 39%... 지난해와 비슷 개신교 신자 77%, 천주교 신자 55%, 불교 신자 35%가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58%가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매우 중요 22%, 중요한 편 36%). 이는 지난해(58%)와 동일한 결과이다.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지난해와 비슷한 39%이다. 종교별로 보면 격차가 크다. 개신교 신자의 77%가 종교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41%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천주교 신자는 55%가 중요하다고 답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불교 신자 중 종교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쳐, 개신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교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불교 신자들 간의 유대감이나 공동체가 약해져 가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58%, 중요하지 않다 39%... 지난해와 비슷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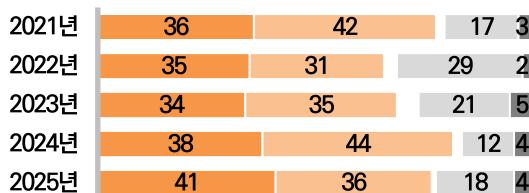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한 편이다 ■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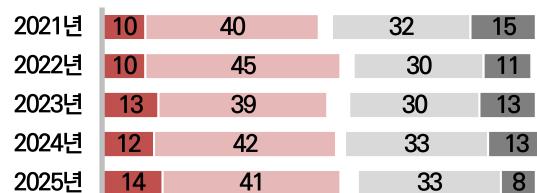
개신교 신자 중 77%가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55%, 불교 신자 중에서는 35%만이 그렇다고 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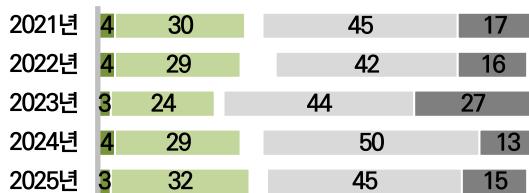
개신교



천주교



불교



질문 : 기도, 예배, 미사, 불공 등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고: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의 응답, 기타 종교 신자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응답자 수: 2021년 508명, 2022년 472명, 2023년 501명, 2024년 489명, 2025년 998명

조사기간: 2021. 11. 26 ~ 29 // 2022. 11. 25 ~ 28 //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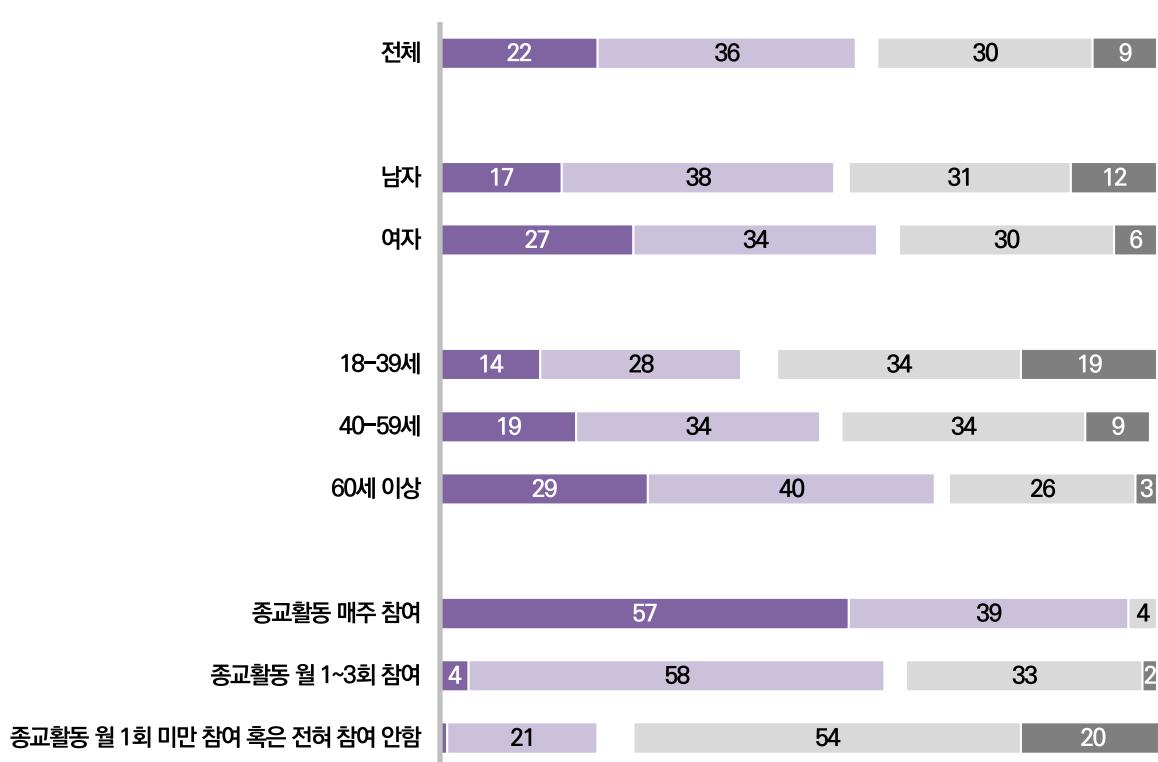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여성과 60세 이상에서 높아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 중 57%가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성(61%)이 남성(55%)보다 높고, 60세 이상(69%)이 4·50대(53%)나 30대 이하(42%)보다 높다.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96%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57%이다. 반면 종교활동에 월 1~3회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62%가, 종교활동에 월 1회 미만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22%만이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종교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그 의미를 크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지만, 역으로 참여 빈도가 낮은 신자에게 종교활동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 여성과 남성보다, 60세 이상이 4·50대, 30대 이하보다 높아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57%가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단위 : %)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한 편이다 ■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질문 : 기도, 예배, 미사, 불공 등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고: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의 응답.

응답자 수: 998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종교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고, 믿는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도 소수이다. 곁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위기의 징후도 보인다. 종교 인구의 고령화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종교별 신자의 40~50% 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젊은 층에서는 10명 중 6~7명이 무종교인이다. 젊은 신자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도와 중요성 인식 또한 낮아 믿음의 '강도'도 약하다. 향후 고령층 신자의 수의 자연스러운 감소가 진행된다면, 종교 인구 또한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신도의 수를 늘리는 것, 특히 젊은층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종교계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10월 기준 약 97만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p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69,849명, 조사참여 3,789명, 조사완료 2,000명 (요청대비 2.9%, 참여대비 52.8%)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11월 21일 ~ 11월 26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